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이칭 인과의 독창적인
콜라보레이션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WATCHES AND WONDERS 2024

엠바고 해제일 : 2024년 4월 9일 오전 8시 30분(CET)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과 “One of Not Many”의 탤런트 이칭 인의 독창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하이 워치메이킹, 오프 꾸뛰르, 하이 퍼퓸머리를 결합한 컨셉 워치와 케이스백에 이칭 인의 이름이 인그레이빙된 100피스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 에디션의 두 가지 타임피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핑크 골드 케이스, '플리츠' 패턴이 장식된 라일락 마더 오브 펄 다이얼, 매력적인 자수와 마더 오브 펄 조각으로 직조한 독창적인 오프 꾸뛰르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어 단순한 시계를 뛰어넘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특별한 워치메이킹 경험을 선사합니다.
- 혁신적인 컨셉 워치는 스트랩 안에 이칭 인이 마스터 조향사 도미니크 로피옹에게 의뢰하여 탄생한 제품 전용 향수가 캡슐화되어 들어 있어 손목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향이 발산됩니다.

Egerie 문 페이지

- 이칭 인의 독창적인 세계를 담아낸 다이얼의 미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가 개발한 컬러의 교체 가능한 스트랩 3개가 제공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하이 워치메이킹, 오프 꾸뛰르, 하이 퍼퓸머리의 매력을 모두 담은 디자인

"One of Not Many" 의 창작품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뿐 아니라 타임피스를 제작하는 독창적인 과정 또한 단 하나인 타임피스입니다. Egerie 컨셉 워치는 바세론 콘스탄틴과 "One of Not Many"의 탠런트인 이칭 인과의 예술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Egerie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는 세련미를 향한 탐구 정신과 탁월함이라는 공통된 비전을 가진 매뉴팩처와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의 합작으로, 하이 워치메이킹과 오프 꾸뛰르, 하이 퍼퓸머리의 세 가지 세계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직경 37mm의 라운드형 핑크 골드 케이스, 파우더 톤의 라일락 다이얼을 장식한 '플리츠' 패턴, 바세론 콘스탄틴이 사랑하는 비대칭 구조, 8시 방향에 표시된 메종의 이름과 2시 방향에 위치한 문 페이지와 크라운이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디자인과 같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실루엣은 세련되면서도 독창적이고 여성스러운 감각을 자아내며 오감을 깨우는 이칭 인의 미학적 매력을 드러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과 이칭 인은 프랑스의 마스터 조향사인 도미니크 로피옹에게 시계 스트랩에 캡슐 형태로 삽입될 독창적인 향의 조향을 의뢰했습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오브제 그 이상의 감각적인 경험

이칭 인의 원동력으로 완성된 Egerie 컬렉션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천상의 세계가 돋보이는, 지금까지와는 현저히 다른 미학을 통해 새로운 개성을 드러냅니다.

다이얼에는 별도의 아워 마커가 존재하지 않아 시간을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더 오브 펄 소재로 완성된 다이얼은 전체 표면에 두 공간으로 나뉜 '플리츠' 패턴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가느다란 골드 '펠'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자리 주변까지도 접힘과 파임이 연속되는 플리츠로 이어집니다. 이칭 인의 선택을 받은 "마치 한낮의 몽상을 섬세하게 구현한 듯, 여성스러우면서도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부드러운 라일락 컬러는 마더 오브 펄로 조각된 문 페이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라인 위로 슬림한 아워, 미닛, 세컨드 핸즈가 지나가며 컴플리케이션에 풍성함을 더합니다.

이칭 인이 디자인한 특별한 스트랩에는 실크 스퀘드 사이에 마더 오브 펄 조각을 새긴 예술적인 자수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칭 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연에서 유려하게 움직이며 물결 모양으로 소용돌이치는 물의 흐름을 묘사하는 작품으로, 이제 막 탈피를 마친 뱀가죽의 취약함과 추상적인 레이스가 지닌 우아한 매력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스트랩이 불규칙적으로 장식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수작업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다이얼의 순수한 형태와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트랩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타임피스가 지닌 매력의 정수로 손꼽히는, 마스터 조향사 도미니크 로피옹이 완성한 향수가 캡슐 형태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위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위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향기를 품은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 위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전용 향은 마스터 조향사와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 사이의 수많은 소통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도미니크는 감성의 연금술사입니다. 초기에는 시간을 독특하면서도 감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계를 제작하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이칭 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시계를 구현하는 완벽한 향이 완성될 때까지 창작 및 아이디어 전개를 위한 수많은 세션을 통해 다양한 감성과 포물러를 조합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도미니크 로피옹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시간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향수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햇빛에 스모키한 향을 살짝 더하여 파스텔 톤과 겨울 감성, 그리고 파우더리한 무지갯빛 노트를 품은 미네랄 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칭 인의 접근법을 완벽히 반영한 향수를 제작하기 위한 성분의 정교한 조합 끝에, 바다 향을 머금은 오조닉 노트와 갈바넘의 미네랄 어코드, 라벤더와 오렌지 블러썸 노트, 허니서클과 이모텔 어코드를 베이스로 한 산뜻한 겨울의 향, 튜베로즈와 일랑일랑이 선사하는 무지갯빛 하이라이트, 향수 보틀 안에 햇빛과 같은 따스함을 가져다주는 오렌지와 레몬,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올리바넘, 미르, 오포포낙스 인센스, 오우드 조합이 완성되었습니다.

향기 완성된 후에는 스트랩의 중심에 이를 캡슐 형태로 담아내어 이칭 인이 말했듯 "숨을 쉬고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향료가 응축된 작은 방울을 캡슐로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공정이 구현되었습니다. 라이닝, 루프, 자수를 비롯하여 스트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는 향료 캡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나노캡슐 안에 담긴 향수는 스트랩이 피부에 닿으며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향이 발산됩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오래도록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드레스

Egerie 컨셉 워치와 함께 이칭 인은 시계의 정신을 담은 오프 꾸뛰르 드레스를 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벼운 패브릭이 몸을 감싸고, 플리츠가 소용돌이치듯 움직이며 초자연적인 컬러를 드러내는 모습은 무아레 다이얼에서 빛이 회절하는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결치는 듯한 실루엣은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부드러운 감각을 자아내고, 마침내 드레스를 착용하고 움직이면서 다양한 디테일로 세심하게 어루만져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지갯빛 새틴의 풍성한 매력이 실크 시폰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햇빛처럼 스커트가 넓게 펼쳐지며 계속해서 다채로운 볼륨감을 선사하고, 이렇게 투명한 효과가 층층이 쌓이면서 실크처럼 끊임없이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며 매 순간 화려한 감각을 발산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다양한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이 작품은 움직임 그 자체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유려하게 흐르는 듯한 라인으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우아하게 표현합니다."

이칭 인은 최신 패브릭 기술을 탐구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염색 기법에 환경에 민감한 나노 염색 기술을 결합하고, 섬유와 패브릭을 미네랄 파우더에 담가 그라데이션 유형의 헤일로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오프 꾸뛰르, 하이 퍼퓸머리, 그리고 하이 워치메이킹을 상징적인 의미와 시각적 요소로 촘촘히 연결하여 독특한 감각을 자아내는 비스포크 드레스가 탄생했습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인터뷰

이칭 인,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 겸 바쉐론 콘스탄틴의 "One of Not Many" 탤런트
산드린 동기,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 마케팅 및 혁신 디렉터
도미니크 로피옹, IFF 마스터 조향사

산드린 동기님, 이번에 최초로 "One of Not Many" 탤런트와 독창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추진하셨는데요. 협업 과정은 어떠셨나요?

EgErie 컬렉션이 2020년 첫 출시 당시부터 오프 꾸뛰르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기도 했고, 이칭 인이 애초부터 이를 훌륭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꽤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디자인에 적용되는 전문성이나 상징적인 의미 측면 모두에서 돋보이는 오브제를 제작하겠다는 야심을 표했을 당시, 이칭 인은 두말 없이 프로젝트에 동의했죠. 라일락 마더 오브 펄 소재의 더블 플리츠 다이얼부터 향수 노트, 스트랩 위의 마더 오브 펄 조각에 레이스를 꼬아 작업하는 데 이르기까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협업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칭 인은 Egerie 컬렉션의 개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그녀 작품 고유의 매력이 드러나는 확연한 오프 꾸뛰르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통된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 꿈, 세련미를 향한 탐구 정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세 분야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타임피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칭 인님,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제 목표는 엄격한 규칙으로 가득한 하이 워치메이킹 분야에 제가 가진 직관적인 독창성을 불어넣어 시간을 표현하는 시계를 제작하고, 이를 감성이 가득한 오브제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인 만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워치메이킹 분야의 기술적 한계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시각적 내러티브와 유연한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저의 예술적인 작업 과정과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이얼은 절제된 스타일로 제작하고, 서정적인 문 페이스와 달에서 비롯되는 더욱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선형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 감각을 자극하고, 마치 달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다이얼은 심플해진 디자인으로 꼭 필요한 핵심 요소만 드러내고, 시계와 드레스 모두에 존재하는 '플리츠' 패턴으로 공명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숨쉬고, 유연함을 선사하며, 엄청난 잠재력을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디자인된 표면에 깃든 자유로움과 표현력을 상징하며, 동시에 시간이 지닌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창작의 세계를 몽환적이고도 자유롭게 배회하는 듯한 플리츠는 시공간적 제한이 없는 무중력 상태인 무한대가 되어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시간의 여유로운 힘을 표현합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도미니크님, 당신은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조향했는지, 그리고 향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료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칭 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향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이칭 인은 조수간만의 주기, 그녀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 플리츠, 풍성한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추주고 따뜻함을 선사하며 일상에 리듬감을 더해주는 태양, 아메시스트, 시간의 컬러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원료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을 향수 노트로 승화시키는 과정은 재미있으면서도 복잡한 과정인데요. 2010년부터 이칭 인과 협업하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디테일 하나하나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향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둘이서 매우 많은 여러 원재료의 향을 맡아보고 테스트했죠. 조향 분야에서 시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꽃과 천연 원료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절에 주기를 부여하고, 고대부터 사랑받은 인센스는 지금도 조향사가 즐겨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하며, 향이 퍼져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탑 노트, 하트 노트, 베이스 노트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산드린님,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측면에서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발전을 이뤄내면서도 때로는 독창적이고, 늘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는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하며 지금까지의 역사 전체에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해 온 바쉐론 콘스탄틴은 늘 혁신을 중심으로 한 독창성을 추구합니다. 메종의 혁신이 있었기에 1755년부터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보일 수 있었고, 풍부한 기록으로 가득한 아카이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메종은 여러 워치메이킹 혁신으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이칭 인과의 협업은 이 점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메종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이칭 인님의 경우에는 작업에 있어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왔나요?

저의 창조적인 접근법에 있어 실험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자 기본 원칙입니다. 작품을 통해 다양한 세계의 만남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표현 영역을 충돌시키려고 하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오프 꾸뛰르 분야에서는 디자인이 기존의 기법에 도전장을 던지는 실험실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식과 전문성이라는 도구는 남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술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죠. 독창성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은 위험을 무릅쓰고 기존의 영역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해요.

도미니크님은 조향과 워치메이킹, 그리고 향수와 시간이라는 개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향과 시간의 공통점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면서도 역사 속의 랜드마크처럼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수 년이 지난 후에도 코끝을 건드리는 향 하나에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오래도록 깊게 묻어 두었던 순간이 떠오른다는 점에서 향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죠. 향수라는 진귀한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 속에 특별한 추억을 새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리미티드 에디션 피스와 컨셉 워치 모두 한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이칭 인이 향 선택 과정에도 함께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020년부터 “One of Not Many” 탠트르로 활약 중인 이칭 인의 예술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올해는 워치메이킹과 오프 꾸뛰르라는 두 분야에 하이 퍼퓸머리라는 세 번째 분야를 접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이칭 인은 두바이 세계 박람회(Dubai World Expo)에 마련된 프랑스관 상설 전시회를 위해 향을 품은 미니마 나투랄리아(Minima Naturalia) 드레스를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스터 조향사인 도미니크 로피옹과의 협업을 통해 드레스만을 위한 향을 완성했죠. 메종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향을 품은 혁신적인 작품을 드레스에서 시계 스트랩으로 확장시켜 하이 워치메이킹 세계에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컨셉 워치를 위한 향은 도미니크 로피옹과 이칭 인의 협업을 통해 특별히 조향되었습니다.

시계 스트랩에 향료 나노 캡슐을 삽입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용된 기술은 무엇인가요? 삽입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시계 스트랩에 향료 나노 캡슐을 삽입하기 위해서, 나노 캡슐화를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혁신적인 과정을 통해 마더 오브 펄 조각을 제외하고 스트랩 구성 요소의 중심부에 향료가 응축된 작은 방울을 캡슐로 담아낼 수 있었고, 이렇게 이칭 인이 말했듯 “숨을 쉬고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노 기술을 활용한 덕분에 스트랩이 피부에 닿으며 손목 움직임에 따라 스트랩이 움직일 때 향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도록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칭 인의 자수처럼 세밀한 표면에 나노 캡슐을 삽입하는 과정이 특히 쉽지 않았어요.

향은 어느 정도 지속되나요?

향의 지속 시간은 스트랩 내부에서 캡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칙적으로 손목을 비틀면 움직일 때마다 발향될 테고, 브레이슬릿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향이 더 오랫동안 남게 되겠죠.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Egerie 문 페이스

이칭 인과의 독창적인 콜라보레이션

세련된 오프 꾸뛰르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미학적인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Egerie 컬렉션에 디자이너 이칭 인과 함께 개발하고 100피스의 리미티드 시리즈로 선보이는 문 페이스 시계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교체 가능한 3가지 스트랩이 매칭된 이번 에디션은 37mm 핑크 골드 케이스와 젼 세팅된 베젤을 갖추고 있으며, 섬세한 라일락 컬러 마더 오브 펄의 매끈함과 “플리츠” 모티프를 번갈아 장식한 다이얼과 바쉐론 콘스탄틴 로고에서 크라운으로 이어지는 섬세한 대각선 위로 문 페이스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컬렉션의 미학적 코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독창적인 콜라보레이션

Egerie 컬렉션은 2020년 처음 선보인 당시부터 여성을 위한 하이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특유의 스타일을 정립했습니다. 이칭 인의 독창적인 세계를 반영한 새로운 Egerie 문 페이스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컬렉션의 미학적 코드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시각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듯 가벼운 감각을 선사하는 이칭 인 작품 고유의 매력, 그리고 양증맞은 플리츠 및 드레이프 효과로 구조를 잡아 경계가 불분명한 실루엣과 같은 그녀의 시그니처는 다이얼 중앙에 플리츠 마더 오브 펄 모티프가 장식된 디자인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선택한 마더 오브 펄 컬러에서도 은빛이 감도는 모브 컬러 패브릭에 부드러운 라일락이나 무아레 파르마 바이올렛 컬러를 가미하는 특유의 스타일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칭 인은 교체 가능한 3개의 스트랩을 위해 선택한 파스텔 컬러를 가리켜 “마치 한낮의 몽상을 섬세하게 구현한 듯 여성스러우면서도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색조”라고 표현합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100피스의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 에디션

부드러움, 몽상, 우아한 품격이라는 표현은 이칭 인의 작품과 새로운 Egerie 문 페이지 시계 모두에 해당하는 수식어입니다. 매끈한 부분과 플리츠 모티프를 장식하여 최초의 Egerie 모델을 연상시키는 라일락 컬러의 마더 오브 펄 다이얼을 통해 부드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섬세한 소재인 마더 오브 펄은 정교한 과정을 거쳐 플리츠 패턴을 구현했고, 주위에는 수작업으로 하나씩 세팅한 섬세한 골드 '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석한 문 페이지는 라일락 마더 오브 펄과 더불어 다이아몬드를 장식하여 몽환적인 감각을 자아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37mm 핑크 골드 케이스의 윤곽과, 드레스메이커의 섬세한 손가락을 연상시키는 슬림한 핸즈, 2시 방향에는 크라운과 문 페이지를 배치하고 8시 방향에는 바쉐론 콘스탄틴 로고를 배치한 Egerie 컬렉션 특유의 비대칭 디자인까지 타임피스 곳곳에서 우아한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백에서 뚜렷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인하우스 칼리버 1088 L은 정확한 타임키퍼를 보장하며, 말테 크로스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오픈워크 22캐럿 골드 로터가 수작업으로 완성한 고프드 제네브 모티프 위를 지나갑니다.

케이스백에는 이칭 인의 풀 네임과 더불어 100피스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 에디션의 숫자가 인그레이빙되어 매력이 돋보이는 하이 워치메이킹의 시그니처를 완성합니다.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계

Egerie 문 페이지 시계는 컬렉션 출시 초기부터 도입되었던 독창적인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갖추어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착용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아한 톤온톤 효과를 자아내는 라일락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 새틴 효과를 자아내는 나이트 블루 카프스킨 레더 스트랩, 파우더 핑크 그레이 카프스킨 레더 스트랩으로 교체하여 다양한 텍스처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거나 대비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 마케팅 및 혁신 디렉터, 산드린 동기와의 인터뷰

Egerie 컬렉션은 2020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여성에게 헌정하는 컬렉션을 제작하고 싶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에서 여성은 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18세기로 막 접어들 무렵 차임 메커니즘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풍성한 에나멜, 인그레이빙, 젼 세팅 장식이 돋보이는 포켓 워치가 출시되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9세기 후반, 바쉐론 콘스탄틴은 여성을 위한 최초의 손목시계를 선보입니다. 그 후 20세기 전반에 걸쳐 메종은 여성 고객층을 위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고, Egerie는 이 같은 접근법으로부터 비롯된 컬렉션입니다. 현재 컬렉션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담한 전문 분야 중 하나인 스페셜 디스플레이나 오프셋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One of Not Many” 캠페인의 탤런트와 함께하는 최초의 독창적인 타임피스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성사되었나요?

이칭 인이 워치메이킹이 지닌 기술적인 한계에 익숙지 않다는 사실 덕분에 더욱 의미 깊은 콜라보레이션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예 제로부터 시작할 필요 없이, 자신의 세련된 예술 세계를 시계 안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죠. 이칭 인은 작품을 통해 플리츠가 지닌 역동적인 특성을 탐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구조와 볼륨감을 구현해 내고, 빈 공간을 조각해냄과 동시에 떠 있는 공간과 조각된 영역 사이에서 균형과 구분점을 찾으려 했어요. Egerie 문 페이지 시계의 다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칭 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파스텔 톤을 연상시키며 정교한 빛을 자아내는 마더 오브 펄 컬러 선택을 비롯하여 미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의 연간 테마, From Geometry to Artistry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에는 단순한 부품들의 합체 그 이상입니다. 스케치와 기하학적인 드로잉에서 시작하여 기술적 부문으로의 확장을 통해 형태, 색상, 그리고 질감이 어우러진 세계가 탄생합니다. 장인의 지성으로 감성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기계 공학의 정교한 구조는 디자인과 결합하고, 세심한 디테일은 우아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는 절차와 수학적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재능을 최상의 경지로 표현하도록

영혼이 충만한 우아한 터치가 더해집니다. Traditionnelle 컬렉션의 클래식함, Patrimony 워치의 미니멀리즘, Egerie의 매력, 그리고 Overseas의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정신이 모두가 기하학적 형태에서 받은 영감을 예술적 기교로 승화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2024년 테마를 통해 완성됩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이칭 인에 대하여

이칭 인은 파리 소재의 국립 고등 장식 예술 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ecoratifs, ENSAD) 출신으로, 2009년 그랑프리 드 라 크레아씨옹 드 라 빌 드 파리(Grand Prix de la Création de la Ville de Paris)를 수상했습니다. 2011년 ANDAM 패션 어워드 파리(ANDAM Fashion Award Paris)에서 ANDAM 퍼스트 컬렉션 프라이즈(ANDAM Prize for First Collections)를 수상한 그녀는 파리 패션 위크(Paris Fashion Week)에서 최초의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메종 레오나드(Maison Leonard), 까르띠에(Cartier), 겔랑(Guerlain), 에르메스(Hermès), 스와로브스키(Swarovski), 랑콤(Lancôme)과 같은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했습니다.

어디서든 확고한 재능을 뽐내는 아티스트인 이칭 인은 다른 예술 영역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조각가 바스티앙 까레(Bastien Carre)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여러 소재의 패브릭과 빛을 결합하여 드레스를 제작했으며, 조르조 만치니(Giorgio Mancini)가 감독을 맡은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 공연을 위해 수석 발레 무용수 도로시 길버트(Dorothee Gilbert)와 마티유 가니오(Mathieu Ganio)의 무대 의상을 제작하며 무용 분야에서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칭 인은 스톡홀름 민속 박물관(Museum of Ethnography)에서 개최되는 깃털의 세계(A World of Feathers)나 피렌체의 애니멀리아 패션(Animalia Fashion)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예술 전시회의 단골 게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레오 카락스(Leos Carax)의 아네트(Annette)에 출연한 마리옹 코티야르(Marion Cotillard)를 위한 드레스뿐 아니라 다양한 영화 속 의상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칭 인은 2024년 말 공개 예정인 프랑스 문화부의 몽드 누보(Mondes Nouveaux)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미래의 인류학과 고고학을 탐구하며 미래지향적인 작품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지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도미니크는 동료 조향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자, 조향이라는 예술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마스터 조향사로 손꼽힙니다. '향'이라는 표현은 도미니크의 내면에 자리한 '발전소'이자 그의 본질과도 같은 열정의 중심부에 자리합니다. 그는 동물의 후각에 필적할 만한 탁월한 감각을 발휘함과 동시에 예술적인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유로움이라는 감각을 선사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주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닌 또 하나의 위대한 재능을 발휘합니다. 도미니크가 바라보는 향수 제작 과정은 신비롭고도 수학적인 행위로, 숫자와 그 조합이 지닌 독창적인 힘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원재료를 조합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한 다음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 다음 원재료를 추가하고, 또 하나를 덧붙이는 식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의 첼로 조곡에서 멜로디를 쌓아가듯이 말이죠. 조향사들은 향을 만들 때 숫자를 잘 기억해 둡니다. 향이 날아가기까지의 시간과 분을 기억하고,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잔향이 남는지를 추적하죠."

도미니크 로피옹의 향수는 전 세계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뒀으며, 그는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향수, 생명 과학, 건강, 식음료 업계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IFF의 마스터 조향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FF의 향수 아티스트들은 지난 60년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다방면에 걸쳐 선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독창적인 팀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IFF의 뉴욕 본사뿐 아니라 파리, 그라스, 상파울루, 상하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제품부터 특별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아울러 향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The Pleats of Time, a concept watch

Calibre	1088 L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30 mm (9") diameter, 5.03 mm thick Approx.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64 components 2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e seconds Moon phases
Case	18K 5N pink gold 37 mm diameter, 10.08 mm thick Bezel set with 58 round-cut diamonds Crown set with a moonstone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Lilac mother-of-pearl, 'pleats' pattern 18K 5N pink gold ring set with 34 round-cut diamonds Polished minutes track with 18K gold 'pearls' 18K 5N pink gold moons behind mother-of-pearl clouds
Bracelet/clasp	Calfskin leather strap adorned with artistic embroidery worked from silk threads, inlaid with mother-of-pearl fragments and encapsulated perfume.
Total gemsetting	92 diamonds, totalling approx. 1.10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s)
Single-piece edition, not for sale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개요

EGERIE - 더 플리츠 오브 타임, 컨셉 워치

EGERIE 문 페이스

FROM GEOMETRY TO ARTISTRY

이칭 인에 대하여

도미니크 로피옹에 대하여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Égérie moon phase

Reference	8005F/000R-H030
Calibre	1088 L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30 mm (9") diameter, 5.03 mm thick Approx.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64 components 2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e seconds Moon phases
Case	18K 5N pink gold 37 mm diameter, 10.08 mm thick Bezel set with 58 round-cut diamonds Crown set with a moonstone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Lilac mother-of-pearl, "pleats" pattern 18K 5N pink gold ring set with 34 round-cut diamonds Circular track with applied 18K gold 'pearls' 18K 5N pink gold moons behind mother-of-pearl clouds 18K 5N pink gold applied Arabic numerals
Straps/Buckles	Delivered with three self-interchangeable straps: Lilac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powder pink grained calfskin leather, and night blue satin-effect calfskin leather Each strap is equipped with an 18K 5N pink gold pin buckle
Total diamond-setting	92 diamonds, totalling approx. 1.10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s)
Limited Edition of 100 individually numbered and engraved timepieces (X/100).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